

주제 : 신월6동 재개발전후 모습

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|
| 기록화 방법 | 과거 사진 자료조사 및 촬영 | | 보고서 회차 | 6 회 | 제출일 | 2022.7.15 |
| 주요 장소 | 신월6동 | 장소 설명 | 신월6동 | | | |
| | | 수 집 일 | 2016. 6. 6. ~ 2022. 7. 15 | | | |
| | | 활 동 가 | 문정순 | | | |
| 참고자료 | 과거 촬영한 신월6동의 사진 자료 | | | | | |
| 금번 활동 내용 | 신월6동 과거 사진 자료를 정리 기록 | | | | | |
| | 신월6동 재개발전 주택 사진을 정리해 본다. | | | | | |
| | 과거 사진의 주택들을 찾아서 정리해 본다.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추후 활동 계획 | 과거 사진을 정리해 본다. 현재 신월6동의 변화된 모습을 촬영해 본다. | | | | | |
| 붙임 | 신월6동 재개발전 주택 사진을 첨부해 본다. | | | | | |



(신월6동 556-23 학등2길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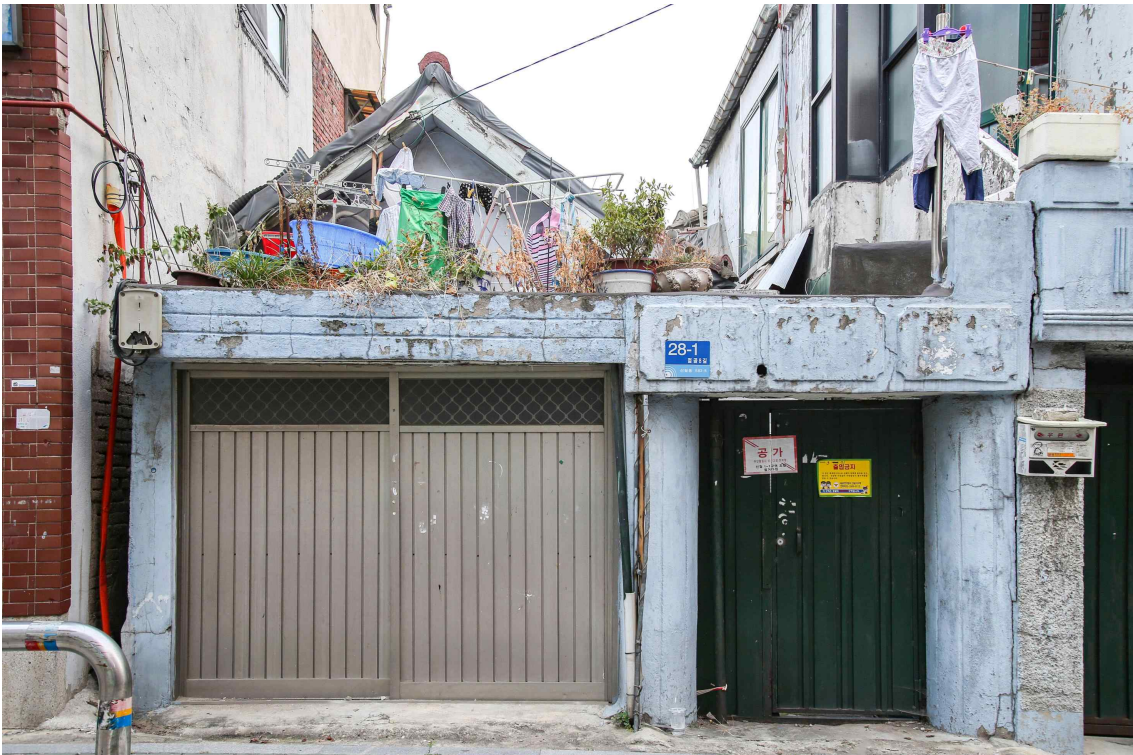
지금은 사라졌지만, 그 시절에 있었던 단독주택들에 대한 과거 사진을 정리해 보았다.



저곳 어딘가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릴 것 같다. 떠나고 간 자리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맞이한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. 저 집 주인은 그 곳에 살고 있을까요?



이층집에 자전거도 있고 앞마당 나무에는 가을이면 무슨 과일이 결실을 보았을까?



(신월6동 583-8 절골8길28-1)

과거 주택들에는 식물들도 자라고 있었다. 고추, 호박, 파, 상추 등을 플라스틱통에 담아서 재배해서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상추에 삼겹살을 싸서 먹고 있었을 것이다.



(남부순환로85길15)

다가구에도 여러 가구가 모여서 정을 키워가면 살았을 것이다. 저 깨진 유리는 누구의 공이 날아온 것일까? 이곳에 같이 사시던 분들이 연락하고 계실지 궁금하다.



한여름 그늘을 만들어주었을 저 나무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. 떠나간 자리는 허전하고 쓸쓸하다. 모두 좋은 보금자리를 찾아서 떠나셨겠지, 하는 기대를 해본다.